3대 대표 가을 축제 준비 총력

남원시, 10월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제32회 흥부제·남원문화유산 야행 개최

남원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시 전역을 축제로 물들일 2024 3대 대표 가을 축제가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남원시 3대 가을 축제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2024 남원문화유산 야행으로, 성공적인 가을 축제 준비를 위해 민선식 부시장 주재로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드론제전 교통편의 경우, 일반 시민 대상으로 남원역-광한루-시청-종합스포츠타운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운행할 계획이며,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광한루원 일원 등 주요 장소와 도로변에 조형물을 조성하고 대회 배너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또한 광한루원을 오는 10월까지는 심야 연장(밤 10시) 운영하는 등 시 전역에 다채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며 제전에서는 △2024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대회 △2024 남원 드론·로봇 전시 체험 & 컨퍼런스 △2024 남원 드론 공연체험 페스티벌 △2024 남원 글로컬 푸드 페스티벌 등 4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남원시 3대 가을 축제 포스터

가을 축제 백미로 우애, 나눔, 보은, 행운 정신을 계승하는 제32회를 맞은 올해 흥부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흥부제와 함께 대박 나세요'를 주제로 흥부제 정체성을 강화한 축제 콘텐츠 등이 선보이고, 흥부전의 핵심 키워드를 행운, 나눔, 상생으로 설정하고 흥부전의 본고장인 남원만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마켓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했다.

남원문화 유산야행은 광한루 창건 신화인 달나라 궁전을 재현해 옥황상제, 견우와 직녀,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문화유산 야간 탐방 프로그램으로 5회째를 맞은 올해는 '광한청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를 주제로, 나흘동안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을 비롯해 요천 월궁광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봄에 춘향제가 있다면, 남원의 가을엔 드론국제제전, 흥부제, 문화유산 야행 등 가을 축제가 있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본격 추진

임실군,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도내업체 선정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관촌면과 오수면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도내업체인 ㈜부강건설을 관촌·오수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달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는 섬진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사선대 공원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17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 인근 대도시 전주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생활권에 속해 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총 120세대(전용면적 84㎡ 60세대, 59㎡ 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둔남천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하며, 오수상설시장 중심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오수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주민 편의 시설과 생활 SOC 공간이 제공되어 주변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지상 13층 규모로 총 80세대(전용면적 59㎡)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지역민과 도민들이 살기 좋은 임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1인당 60만원 37억원 규모…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카드 수령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7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극심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1인당 6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6,205명으로 확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순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2매가 지급된다. 각 카드에는 30만원이 충전돼 있어, 1인당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사용 기한은 1년으로, 농민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3일, 농협 남원시지부와 관내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시청 로비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남원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전개

남원시는 3일, 농협 남원시지부와 관내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시청 로비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 오영석 시지부장, 박기열 남원농협조합장, 김영규 춘향골농협조합장, 정대환 지리산농협조합장, 오용담 운봉농협장 등이 참여해 가래떡과 홍보용 쌀 500g을 나눠주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유지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각종 기념품을 제작할 때 남원시에서 생산된 쌀 가공 제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쌀값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임실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연구 개발된 기술과 지역 특산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12개소에서 신청한 가운데 임실군은 유청(치즈 부산물)과 복숭아, 매실을 활용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음료 개발로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제품개발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사업추진은 관내 유가공업체와 생산자단체 협의를 통해 가공사업장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지원과 제품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 치즈 산업과 과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치즈 산업과 과수산업의 활성화 및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을 개발해 농외소득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에서는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찾아가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자살사망자의 약 45%는 자살 사망하기 1달 이전에, 77%는 1년 이내에 1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이후 1년 내 자살로 사망한 정신질환자 인구는 10만명 당 약 241명, 자살 시도는 772명으로 나타났다. (출처, 2024년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지침)

이에 시 보건소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7개 면과 동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9월 2일 산내면, 송동면(3일), 대강면(4일), 금지면(5일), 보절면(6일), 향교동(9일), 사매면(11일)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와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추석 명절 화재 대피 요령 안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대피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에는 가정에서 많은 요리를 준비하며 식용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반 화재와 달리 물로 진화하는 경우 불길이 더욱 확산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게 되면 수증기로 변해 오히려 화재를 더 확산시키게 되고 온도가 매우 높아 분말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우며, 대처법은 △화재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 △프라이팬 뚜껑을 닫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 공기를 차단 △불이 붙은 초기에 배춧잎·상춧잎을 다량으로 넣어 온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